

마테오 리치와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 동·서 윤리학의 만남의 자리*

오지석 (숭실대학교)

I. 들어가는 말

II. 소통과 화통의 윤리 - 『이십오언(二十五言)』을 통해 만남 『앵케이리디온』

1. 에픽테토스와 『앵케이리디온』
2. 마테오 리치의 『앵케이리디온』 이해
3. 동서양 윤리가 소통하고 화통하는 자리: 『이십오언』

III.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09>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3S1A5B5A07047932)이다.

• ABSTRACT •

'Encheridion' of Mateo Ricci and Epictectus: An Encounter between the
Western Ethics and the Eastern

O, Ji-Seok (Soongsil University)

This research paper delves into the meaning of 'Korean Christian ethics.' People usually think that Christian ethics is only based on the Western tradition; however, it is impossible to think of Korean Christian ethics without the conception of other Asian religious traditions. Jesuits' endeavors were prominent in that they used their own methodology, called, 'the accommodation mission method.' Matteo Ricci was the frontier of this since he tried to teach about morality with the short sentences of the Stoic philosophy, *Encheridion*, written by Epictectus, to the Chinese nobles and scholars. Ricci learned this book as he studied ethics, so he could introduce *Encheridion* to Chinese because they were interested in their personal economic welfare and individual moral development. *The Book of 25 Paragraphs(or Twenty-Five Saying)* designed as a story-telling anthology instead of dogmatics, as it was dealing with virtue as it tried to communicate with Chinese society. Ricci altered *Encheridion* to the Chinese contexts as he switched Greek philosophical concepts into the Chinese examples. Therefore, *The Book of 25 Paragraphs* is not a simple Chinese translation of *Encheridion*; rather, it is a new work which cited Chinese classics as it expressed the idea of 'respecting Confucianism but rejecting Buddhism,' such that it is perfectly fit into the Confucian tradition in terms of the practical wisdom of virtue. Thus, Ricci showed the two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s can be compatible with each other as such that both traditions have the common ground in terms of the moral philosophy and the practice of virtue.

Key words: Matteo Ricci, Epictectus, *Encheridion*, *the Manual*, *The Book of 25 Paragraphs*, the Western Ethics and the Eastern, Jesuit, Hellenism, Stoic ethics, Sōhak Ethics, Christian Ethics

I. 들어가는 말

서양의 씨줄과 날 줄로 짜여 졌다고 생각하기 쉬운 기독교윤리 분야에 서양의 씨줄과 동아시아의 날줄이 겹치고 짜진 윤리사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와 문화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서양과 전혀 새로운 문명에 접근하는 방식으로서의 적응주의 선교 방식은 알려진 대로 일본에 가톨릭을 전한 하비에르(또는 사비에르)가 일본의 문화적 장벽을 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¹⁾ 이런 하비에르의 문화적 발견은 발리나노로 이어졌고, 발리나노에 의해 적응주의 선교정책은 대화노선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발리나노는 르네상스 시대에 고전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듯이 토착문화 속에서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역사적 흐름은 마테오 리치에서 비롯된 문서선교의 계승으로 나타나 동아시아의 지식층 인물들에게 이어지게 되었다. 이 모습은 동아시아가 서양문화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마테오 리치는 이러한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전혀 다른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명나라) 관료집단, 엘리트 지배층에 가벼운 도덕에 관한 짧은 글들을 가지고 접근했다. 마테오 리치는 자신이 로마에서 교육받을 때 읽고 공부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를 기억하고 그의 짧은 도덕적 언명이 담겨져 있는 『앵케이리디온』에 주목하였다. 그는 과감하게 축약하기도 하고, 순서를 바꿔가면서 중국어로 번역한 후 중국 지식인 사회와 소통을 시도하였다. 그 흔적으로 풍응경과 서광계의 『이십오언』의 서문과 발문을 들 수 있다. 특히 리치와 그들과의 교류는 '리치방식'이라는 동서문화교류의 전형이 되었다.

1) 김혜경,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서강대학교출판부, 2012, 386.

이 지점에서 한국 기독교윤리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윤리는 단순히 조직신학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현장에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타문화 또는 다른 종교 사상과 대화를 시도한다면 갈등과 벽을 만들기보다는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를 한 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고민하고 동아시아 세계에 내놓은 서학윤리사상은 기독교윤리에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기독교윤리학의 연구범위는 서학윤리사상에 대한 이해의 폭과 궤를 같이 한다. 왜냐하면 서학윤리사상은 근대이전의 서양(기독교) 윤리와 학문적으로 접촉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고, 동아시아 전통윤리사상과 서양윤리사상, 그리고 문화와의 만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학윤리사상의 이해를 통해서 한국기독교윤리는 선교와 문화교류의 경계에 설 수 밖에 없고, 그 접근은 소통疏通과 화통和通으로 표현될 수 있다. ‘소통’이라는 말에 대해 우리말 사전은 “의견이나 의사가 서로 잘 전달되는 것”,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서 얼핏 보면 상통相通과 다름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혜경의 이해처럼 소통은 어디까지나 주체가 객체를 향한 주체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주체가 객체를 대상화하거나 편향된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콘텍스트를 무시된 채 텍스트만 가지고 자신들의 잣대로 해석하고 소통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와 기독교는 그 문화 속에서 말살당하고 말 것이다. 소통의 위험을 넘어 상통의 길을 나서다보면 ‘적응주의’의 한계에 마주친다.²⁾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로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화통(和通)이라고

2) 앞의 책, 390-397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윤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은 '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너'에게 다가가 '더 큰 묶음'을 만들어 내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하는 윤리어야 한다. 이 연구는 선교와 문화교류의 경계에 서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윤리의 모습을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을 발췌 번안역한 마테오 리치의 『이십오언』에서 만나려 한다.³⁾

II. 소통과 화통의 윤리 - 『이십오언』을 통해 만난 『앵케이리디온』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이고,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이 아니다.” - 에픽테토스, 『앵케이리디온』 (김재홍 역, 2013), 제1장

“대상 사물에는 나에게 달려 있는 (주체적인) 것도 있고, 나에게 달려 있지 않은 (객체적인) 것도 있습니다.”(物有在我者, 有不在我者) - 마테오 리치, 『二

3) 서학윤리사상은 예수회의 문헌 특히 마테오 리치의 문서 속에서 시작된다. 특히 이지조가 편찬한 『천학초합』에 들어있는 『천주실의』, 『교우론』, 『25언』에 나타난 서양 스킨라 시대의 윤리사상과 스토아의 윤리사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윤리사상과 중세시대의 윤리사상에 대한 연구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에픽테토스의 사상과 기독교 신학사상과 접점을 살펴본 Boter G.의 *The Encheridion of Epictetus and its Three Christian Adaptations* 그리고 마테오 리치의 『25언』과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의 상호연관성을 밝혀낸 스펠라틴 신부의 *Matteo Ricci's Use of Epictetus*(1975), 김재홍의 『앵케이리디온』번역과 연구와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2013), 송영배의 『이십오언』(2000)번역 그리고 최근 김상근가 발표한 「스토아 철학과 명말(明末) 불교의 혼동 :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을 『二十五言』으로 번역했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선교 방식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2014) 그리고 히라카와 스케히로의 『마테오 리치』(2002)은 동서 윤리사상의 만남의 자리가 어딘지에 대한 좋은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삼아 서학윤리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서학윤리사상 연구 경향을 보면 『천주실의』에서 나온 스킨라 윤리사상, 특히 토마스주의와 조선 유학자들 가운데 다산 정약용의 윤리사상을 비교하는 것, 동양윤리의 개념 가운데 마테오 리치가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단순한 서양윤리사상이 아니라 기독교윤리사상이 어떻게 한국사회에 접목되어 가는가에 대한 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十五言』(송영배 역, 2000)

“사물 중에는 나에게 있는 것이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 - 마테오 리치, 『二十五言』(하라카와 스케히로/노영희 역, 2002) 〈요체〉 1장

1. 에픽테토스와 『앵케이리디온』

2014년 4월 16일 이후 한국사회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니 한국사회라는 ‘세월호사건’이라는 가시를 하나 지니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해법은 아직도 묘연하다. 이런 사회에 치료가 필요한 데 어떤 것을 통해 치유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만난 로마시대 노예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생각이다. 그는 가난한 노예로 태어나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으나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⁴⁾’을 살았다. 그는 ‘견뎌라 또 인내하라(anechou kai apechou)!’를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 ‘정신적으로 병들고,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비록 몸은 절름발이 노예로 살아서 외적 자유를 제한 받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러한 삶을 산 에픽테토스에 우리는 주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십오언』을 통해 서양과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종교(불교)와 비교하며, 유교와 대화를 하면서 소통과 존중의 모습을 이루려 한 마테오 리치의 소통을 넘어 화통에 이르러자 하는 태도에서 갈등과 경쟁 그리고 폭력으로 물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윤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마테오 리치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전통을 따라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동서양, 서로 다른 믿음의 체계 속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세계에 마

4) 김재홍은 2013년에 『앵케이리디온』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tho eleueros bios mallon e ho Basileus)-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라 하였다.

테오 리치가 소개한 에픽테토스는 어떤 사람인가?

에픽테토스(Epictetus)는 노예와 신의 친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스토아 철학자이다. 그의 이름에는 '획득했다' 또는 '걸다리로 얻은' 업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 당시 대부분의 철학자들의 경우처럼 에픽테토스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는 터키 서남쪽의 피뤼기아 지방의 히에라폴리스에서 기원후 50~60경에 태어나 130년경(혹은 135년경)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다Souda』라 알려진 고대 역사 백과사전에는 그에 대해 “피뤼기아의 히에라폴리스(현재의 터키 파묵칼레)에서 태어났고, 네로 황제의 경호원 가운데 한 사람인 에파프로디투스의 노예였으며, 류머티즘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었고, 마흔살 쯤에 아드리아 해 부근 에페이로스(Epeiros)지방의 니코폴리스(Nicopolis)에 정착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세에 이르기까지 살았고 많은 것을 썼다.”고 전하고 있다.⁵⁾ 우리가 알다시피 ‘스토아학파’라는 이름은 철학자들이 즐겨 토론하던 건물의 형태, 긴 낭하에 기둥만이 세워져 있는 건물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특히 전기 스토아학파를 열었던 철학자들의 원래 작품들은 다 없어지고, 철학사가나 전기 작가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통해서 그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에픽테토스는 그의 문하생이었던 아리아누스의 덕분에 우리에게 그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그의 생각은 ‘소크라테스 사상’의 계승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를 사로잡았던 것은 소크라테스의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삶의 모토다. 이것은 에픽테토스의 삶의 규범이 되었고, 실천으로서의 철학함이라는 철학자로서의 삶을 보여준다.

에픽테토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리아누스가 전하고 있는 『대화록』과 『앵케리디온』을 읽어야 한다. 『대화록』은 모두 8권으로 편

5) 김재홍,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 서광사, 2013, 280-281.

집되었으나 오늘날 전해지는 것은 4권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앵케이리디온』은 그것을 53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앵케이리디온(encheiridion)이라는 말은 ‘손 안에 든 작은 것(en + cheiros + dion)’⁶⁾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은 고대 그리스와 중세에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의 제목이라기 보다는 편집양식 또는 서술양식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매뉴얼(*Manual of Epictetus*)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에 대한 매뉴얼인가? 이 책은 우선 에픽테토스의 생각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도덕에 대한 언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에픽테토스의 도덕에 관한 작은 책’ 또는 ‘도덕 교본’, ‘도덕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이나 세속사람들 모두에게 꽤나 오랫동안 중요한 책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늘 손에 지니고 다니면서 애독했고, 중세 시대 수도원 전통에서 키케로의 『의무론』이나 세네카의 『도덕 서한』처럼 널리 읽혀졌다. 1497년에는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옮겨져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출간되었다. 또한 이 책은 1528년 심플리시우스(Simplicius)의 주석과 함께 베니스에서 헬라어로 출판되었고, 1567년에는 영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이 책은 기독교의 영향 아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대중에게 사랑받아 오고 있으며 교부 신학자 오리게네스나 사상가 파스칼에게도 영향⁷⁾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계몽운동 중에도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과서로

-
- 6) ‘앵케이리디온’은 두 가지 문자적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손 안에 든 작은 것’이며 ‘소책자’, ‘매뉴얼, 소책자’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는 ‘소책자’, ‘매뉴얼’에서 도출될 수 있는 데, 그것은 ‘입문서’이다. 이 둘을 합치면 ‘앵케이리디온’은 ‘입문적 소책자’라 할 수 있다. (이창우, 「왕보다 자유로운 노예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에픽테토스, 『앵케이리디온: 도덕에 관한 작은 책』, 김재홍 옮김, 까치, 2003」, 『인간연구』 5, 서강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3, 279 참고)
- 7) 이 부분에 대한 최근 우리말 연구는 신경수의 “에픽테토스의 도덕론에 대한 파스칼의 수용,” 『철학논총』 83-1(2016)이 있다.

도 사용되었다.⁸⁾

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온』은 내용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⁹⁾ 제1장에서부터 제21장까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과 달려 있지 않은 것’, 제22장에서 제29장까지는 ‘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충고’, 제30장에서 제47장까지는 ‘적합한 행위들의 발견을 위한 충고’, 제48장에서 제53장까지는 ‘가르침의 실천에 관한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픽테토스는 『엔케이리디온』에서 부질없는 인간의 욕망이나 감각 혹은 명예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위해 관조적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삶’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에픽테토스의 금욕적이고 영적인 스토아 사상은 기독교의 윤리도덕 규범과 중첩된다. 이런 모습 때문에 그의 생각에 『신약성서』나 기독교적 사상이 연관되어 있으리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등장한다.¹⁰⁾ 그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낼 때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텍스트들이나 사상을 읽거나 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에게 기독교적 사유방식 또는 신앙이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 『엔케이리디온』을 『성경』처럼 여기고 많이 애독했다. 그 한 예로 파스칼(Blaise, 1623~1662)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광세』로 유명한 파스칼은 에픽테토스를 통해 ‘신의 길’을 배웠다고 고백한다. ‘신의 길’은 진리에로의 길이다. 그에게 신은 언제나 숨어 있는 하나님이었다. 그는 ‘인간의 의무’와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서 ‘신을 바라봄’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했고 에픽테토스를 찬양한다.¹¹⁾ 파스칼은 『엔케이리디온』을 자주 인용하면서

8) https://en.wikipedia.org/wiki/Enchiridion_of_Epictetus

9) 김재홍의 번역본의 내용을 따라 사용함.

10) 신경수, “에픽테토스의 도덕론에 대한 파스칼의 수용,” 『철학논총』 83-1(2016), 174.

11) 파스칼의 이런 흔적은 사시의 비서 니콜라스 폰텐느가 기록한 파스칼과 라 메스트르

『드 사시 씨와의 대화(l'Enteretien avec M. de Sacy)』와 『팡세』를 이어간다.

2. 마테오 리치의 『앵케이리디온』 이해

마테오 리치는 왜 『앵케이리디온』을 주목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6세기 예수회의 회헌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¹²⁾ 또한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르네상스와 휴머니즘의 정신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플레지오마노는 예수회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며 다른 모든 예수회 교육기관의 모범이었다. 예수회 신학생들의 교육과정은 2년의 수사학, 3년의 철학, 그리고 3년의 신학 연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리치는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라틴 고전을 배웠고, 그리스 고전 또한 배웠다. 특히 그는 키케로의 문체를 따라했는데 이것의 흔적은 『교우론』과 『서국기법』이라는 중국어 저서로 남아있다.

3년의 철학 과정에서 리치는 논리학,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세네카와 에픽테토스를 비롯한 여러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을 공부했다. 또한 예수회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수학적 지식은 신학을 배우기 전에

em 사시(1313~1684) 사이의 대화를 묶은 『드 사시 씨와의 대화(l'Enteretien avec M. de Sacy)』에서 잘 드러나는 데, 이 책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에픽테토스의 윤리학의 주해로서 윤리학의 진수는 최고선 즉,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5장에서 에픽테토스와 몽테뉴 양쪽에 대한 평가, 제7장에서 파스칼은 에픽테토스와 몽테뉴에 대한 상대적 유용성을 언급한다. 파스칼은 에픽테토스를 ‘인간의 의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평가하며, 에픽테토스의 텍스트들을 효과적으로 개작하여 에픽테토스의 스토아주의를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에 알맞게 각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신경수, “에픽테토스의 도덕론에 대한 파스칼의 수용,” 『철학논총』 83-1(2016) 164-175 참고)

12)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김상근의 『동서문화의 교류와 예수회 선교역사』(한들출판사, 2006)과 심종혁의 『초기 예수회의 교육과 마테오 리치의 선교활동』,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년 국제학술심포지엄 『동서양 문명의 만남, 도전과 기회.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 서거 400주년을 기념하여』, 2010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드시 이수해야만 하는 필수과목이었다. 이것은 훗날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동아시아 세계에 전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마테오 리치는 『이십오언』의 저본이 된 『앵케리이디온』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마테오 리치는 『앵케리이디온』의 저자가 에픽테토스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덕에 관한 작은 책”이라고 『이십오언』을 이야기 한다.

마테오 리치의 『앵케리이디온』이해의 한 측면으로 에픽테토스가 ‘내면의 자유’와 자신의 ‘영혼을 돌볼 것’을 철학의 덕목으로 삼은 데 반하여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보다는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도덕 원칙을 소개하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해석¹³⁾한 김재홍의 지적은 타당하다.

리치는 『앵케리이디온』에서 가장 중요한 제1장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과 달려 있지 않은 외적 대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를 『이십오언』의 제1언에 배치함으로써 스토아 철학의 진수 가운데 하나인 에픽테토스의 사상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 전문용어를 중국어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유교’ 언어를 선택해서 그 사상을 충분히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 예로 에픽테토스의 핵심어라 할 수 있는 ‘노예적인 것, 자유로운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본성적으로 노예적인 것들을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것에 속하는 것들을 너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구절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또 그는 『앵케리이디온』 제17장을 거의 그대로 『이십오언』의 제17언에 배치한다. 이 장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명상록』에서 인용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자신이 젊은 시절 배웠고,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옮겼다고 할 수 있다.

13) 김재홍, 앞의 책, 409.

그는 『앵케이리디온』 제49장에서 ‘이론보다는 실천을 보여라’는 주제를 제21언에 옮겨 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는 제52장에서 학문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천의 영역을 이야기한다. 리치는 이 장을 『이십오언』의 제일 마지막 25언에 다음과 같이 시작하면서 옮긴다. “학문의 요체는, 첫째는 실천에 있습니다(第一在乎作用). 일을 (몸소) 실천한다면, 옳지 못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앵케이리디온』에 나타난 에픽테토스의 강조점 ‘철학의 탐구에서 제일 중요한 첫째 영역인 실천적·도덕적 영역’에 대한 이해를 『이십오언』을 통해 펼치고 있다. 그는 실천에 대한 강조를 “행하는 바가 전부 (도리가) 아니면서, 그것을 입으로만 비판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옮기고 있다.

여기서는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을 마테오 리치가 자신의 선교적 판단에 의해 발췌 변안을 한 『이십오언』을 살펴보자.

3. 동서양 윤리가 소통하고 화통하는 자리: 『이십오언』

“저는 수중에 전혀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인쇄한 문장의 대부분은 기억으로 썼을 뿐입니다.”- 마테오 리치의 보고서

“마테오 리치 선생이 많은 서양서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빨리 중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 서광계의 발문

마테오 리치의 『이십오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테오 리치의 문서선교의 성격 또는 전략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하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충동원한 기독교 교리 교육을 통해 중국 관료들 사회에서 행해지는 일부다처제의 삶을 일부일처제로 정착시키는 윤리적 변화를 이끌어

동서양 문명을 잇는 가교가 되었다.¹⁴⁾

리치는 베이징에 정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어로 집필하기 시작한다. 그가 중국어로 중국어 책을 집필한 이유는 기독교 교리와 윤리에 관한 저서들이 중국인 문인 학자, 관료나 회심자 및 예비 신자와 기독교에 친밀함 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거나 적대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문서선교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리치는 토착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에 따라 책을 출판하였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을 기록,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달리 말해 번역자와 해설자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거쳐 저술하였다. 둘째, 리치가 낸 많은 서학서들은 선교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선교에 방해가 된다면 거기서 멈추었다. 셋째, 리치는 중국인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한자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최상의 선교방식은 서적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외국인 배척과 쇠국정책으로 선교사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선교사가 닿지 못하지만 서적은 유통되는 동아시아의 전통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¹⁵⁾ 이런 특징은 동서양 윤리가 소통하고 화통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계기가 되었다.

마테오 리치의 『이십오언』은 어떤 책일까?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을 중국어로 부분 발췌해 선교적 판단에 의해 번안까지 한 책이다. 김재홍은 마테오 리치의 기억이 비상해서 『앵케이리디온』 전체를 줄줄이 암기하고 있었으나 에픽테토스의 말과 공자가 전하는 '유교'적 어록이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독자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킬 목적을 염구에 두고

14) 김혜경, 앞의 책, 254.

15) 같은 책, 254-257.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당시 중국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한계 내에서 옮겼을 수도 있다고 16) 『이십오언』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김상근은 ‘서광계의 서문에 의하면 원전을 직접 보며 번역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을 완전히 새롭게 각색한 것으로 본다. 그는 그 이유로 원저자의 이름이 생략되었고, 스토아 철학의 핵심 내용을 완전히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체계로 변형시켜 중국인들에게 소개했다고 생각한다. 17)

『이십오언』은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야만의 세계, 비이성적인 세상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문화를 접하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유양식과 관습을 만나는 경험을 옮긴 서학의 윤리서이며 동아시아인에게 아직껏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윤리 사상을 열어 준 열쇠라 할 수 있다.

『이십오언』으로 『앵케이리디온』을 만나다보면 서로 어떤 부분이 같고 다른지 대조하고 싶어진다. 이 부분을 정리한 사람이 스펠라틴 신부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 두 책의 관계를 다음처럼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이십오언』	『앵케이리디온』
제1언	11
제2언	2
제3언	25
제4언	상응하는 문장이 없음
제5언	22의 일부
제6언	3

16) 김재홍, 앞의 책, 408.

17) 김상근, “스토아철학과 명말(明末) 불교의 혼동: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을 『二十五言』으로 번역했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리치의 선교방식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 『선교신학』 35(2014)

『이십오언』	『앵케이리디온』
제7언	12
제8언	22
제9언	6
제10언	11
제11언	10?
제12언	15
제13언	31?
제14언	43
제15언	34
제16언	19를 주로 함
제17언	17
제18언	41
제19언	26
제20언	37
제21언	49
제22언	33,38
제23언	20,42
제24언	46
제25언	52

리치의 주장이 에픽테토스의 주장과 나란히 이어진 것은 제1언과 제2언 뿐이다. 뒤의 것들은 순서가 흩어져 있다. 순서만 이처럼 흐트러진 것이 아니다. 『앵케이리디온』이 『대화록』을 요약한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어로 된 『이십오언』은 53개로 구성된 『앵케이리디온』을 25로 축약한 것이다. 리치는 『앵케이리디온』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거나 고대 그리스의 예를 고대 중국의 고전이나 예로 바꾸었다. 뿐만 아니라 에픽테토스의 스토아적 발상을 중국 선비들의 취향에 맞도록 재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리치의 선교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마테오 리치의 『이십오언』을 어떻게 만났을까?

『이십오언』에 대한 조선 후기의 기록은 이벽이 이승훈에게 부탁하여 북경에서 구입한 『천주실의』, 『칠극』, 『이십오언』이 수록된 『천학초합』 등의 서적을 탐독했다는 것과 1791년 서학서 소각사건에 그 목록이 나와 있는 것이 전부이다.¹⁸⁾ 20세기에 들어서 마테오 리치의 『이십오언』을 만나게 된 것은 한국에서 예수회 신부로 활동한 Christopher Spalatin의 “Matteo Ricci’s Use of Epictetus’ Encheiridion,” *Gregorianum* 56, no. 3 (1975)을 통해 『이십오언』 존재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소현수의 『마테오 리치 : 동양과 서양의 정중한 만남』(서강대학교 출판부, 1996) 부록에 Christopher Spalatin의 영역을 다시 번역한 것과 송영배 역주의 『교우론, 스물다섯 마디 잠언, 기인십편 - 연구와 번역』(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그리고 히라카와 스케히로의 『마테오 리치 -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노영희 역)(동아시아, 2002) 등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21세기의 만남은 김재홍과 김상근의 연구에 의해서 이다.

그렇다면 마테오 리치의 에픽테토스의 윤리사상의 소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21세기 세상은 소통보다는 불통이 낫설지 않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모종의 결함을 품고있는 소통疏通보다는 ‘나와 너’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통相通을 넘어 나와 너의 부족함을 서로가 메워주고 협력하는 가운데 융합을 모색하는 화통和通이 필요하고 그런 윤리가 등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16세기 동아시아 건너온 이탈리아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보여주었던 먼저 문화인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인문학적 태도와 방식을 체득해

18) 오지석, “조선 후기 지식인사회의 서학윤리사상 수용과 이해,”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39-140.

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실마리를 『앵케이리디온』과 『이십오언』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나오는 말

우리의 윤리사상 또는 윤리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불교나 유교를 비롯한 종교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기독교의 경우는 다르다. 특히 기독교 윤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윤리는 예로부터 전해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깨우친 학문도 아니며 생활 속에서 친숙함이 묻어나오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서양인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에 건너와 전파한 종교다. 기독교 윤리도 이들의 활동과 무관할 수 없다. 그리고 번역이라는 작업을 통해 전해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독교는 서양의 학문과 동양의 경전, 고전을 번역 소개하거나, 타종교의 교리와 핵심 개념에 기독교적 관점을 투사하여 해석하는 형태로 동아시아 세계와 만났다. 우리가 수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 용어 또는 기독교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들만 앞서 언급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활동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서양의 기독교(여기서는 가톨릭)를 전하기 위해 예수회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에서 사용했던 방법(적응주의 선교방식)과 그들의 의식은 기독교윤리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특히 마테오 리치는 이러한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 전혀 다른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인 특히, 중국(명나라) 관료집단, 엘리트 지배층에 가벼운 도덕에 관한 짧은 글들을 가지고 접근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십오언二十五言』이다. 마테오 리치는 자신이 로마에서 교육받을 때 읽고 공부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를 기억하고 그의 짧은 도덕적 언명이 담겨져 있는 『앵케이리디온』에 주목하였다. 이 책은 『성경』이 보급

되지 않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늘 손에 지니고 다니면서 애독했고, 중세 시대 수도원 전통에서 널리 읽혀졌다. 이 책은 기독교의 영향 아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대중에게 사랑받아 오고 있으며 교부 신학자 오리게네스나 사상가 파스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16세기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환경 속에서 자란 리치가 예수회의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 특히 3년의 철학 과정에 포함된 세네카, 에픽테토스를 비롯한 여러 스토아학파의 윤리학을 배웠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테오 리치는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디리온』(53장)을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개인의 도덕성 계발에 관심을 둔 중국인들이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축약하기도 하고, 순서를 바꿔가면서 중국어로 번역하고 때론 첨언하면서 25장으로 구성된 짧은 글로 소개한다. 그 이유는 윤리서-과학서-종교서 순서로 편찬한 리치의 문서선교 방식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리치는 ‘자아’의 회복, 신독慎獨에 대해 도그마와 교리의 형태가 아닌 상담하거나 견해를 밝히는 형태로 『이십오언二十五言』을 기술했다. 그는 다른 종교나 종파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덕행에 관한 이야기를 스토아 학풍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이십오언』으로 중국 지식인 사회와 소통을 시도하였다. 풍응경과 서광계의 『이십오언』의 서문과 발문이 그 흔적이다.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디리온』과 마테오 리치의 『이십오언』을 비교해보면 그 순서가 흐트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앵케이디리온』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거나, 고대 그리스의 예를 고대 중국의 예로 바꾸거나, 에픽테토스의 스토아적 발상을 중국 선비들의 취향에 맞도록 재배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 리치의 『이십오언』은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디리온』의 번역이 아니라 동양의 고전들을 이용하면서 척불보유론斥佛補儒論의 전략이 잘 드러나게 치밀하게 변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십오언』에 나타나 있는 스토아 윤리의 가르침은 유교적 전통과 실천적 덕의 지혜와 어울리는 것

같다. 리치는 『이십오언』에서 교리를 가르치기 보다는 신도의 생활을 하려는 이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준다. 『이십오언』은 스토아주의, 유학, 그리고 기독교라는 확실히 서로 전혀 다른 전통 속에서도 같은 토대의 도덕철학과 덕의 수행을 위해 만나고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교사인 리치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서양 고대의 휴머니즘 작품에 주목한 것은 리치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중국의 유교 고전에 주목한 것과 동일한 시각이었다. 마테오 리치의 『이십오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하는 윤리 그러한 윤리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윤리의 모습이다.

참고문헌

〈마테오 리치 Matteo Ricci의 저술〉

『교우론 외』, 송영배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에픽테토스의 저술〉

Dobbin, R., Epictetus: Discourses Book 1, Oxford, 1998.

Oldfather, W. A. Epictetus: The Discourses as Reported by Arrian, the Manual, and Fragments(2vol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앵케이리디온』, 김재홍 역, 까치글방, 2003.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삶』-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 『대화록』연구, 김재홍 역, 서광사, 2013

『에픽테토스의 ‘잠언집’』, 정명옥 옮김, 까치글방, 1999.

김상근, “스토아철학과 명말(明末)불교의 혼동 -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을 『二十五言』으로 번역했던 예수회선교사 마테오리치의 선교방식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 『선교신학』 35(2014), 69-94.

김선희,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의 유교적 변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08.

김재홍, “해제- 헬레니즘시기의 철학과 에픽테토스의 스토아 윤리학,” 에픽테토스 저, 김재홍 역 『앵케이리디온-도덕에 관한 작은 책』, 까치글방, 2005.

김재홍, “상식의 철학자 에픽테토스와 스토아 윤리학,” 『서양고전학연구』 17(2001), 97-132.

김재홍, 『에픽테토스 『담화록』』,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김혜경,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역사와 의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2.

송영배, 『동서 철학의 교섭과 동서양 사유 방식의 차이』, 논형, 2004.

신경수, “에픽테토스의 도덕론에 대한 파스칼의 수용,” 『철학논총』 83(2016), 163-181.

오지석, “조선후기 지식인사회의 서학윤리사상수용과 이해”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마테오 리치와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리디온': 동·서 윤리학의 만남의 자리(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09>) | 오지석 271

- 오지석, “동서기독교윤리학의 가교로서의 서학윤리사상,” 『기독교사회윤리』, 21 (2011), 199-227.
- 이창우, “관조(觀照)와 복된 삶 - 고대 스토아 윤리학의 신학적기초,” 『서양고전학 연구』 26(2006), 193-218.
- 이창우, “왕보다 자유로운 노예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연구』 5(2003), 279-284.
- 에픽테토스, 김재홍 옮김. 『앵케이리디온: 도덕에 관한 작은 책』 서울: 까치, 2003.
- 히라키와 스케히로, 노영희 역, 『마테오 리치』-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동아아시아, 2002.

논문투고일: 2016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16년 07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05일

 • 국 문 초 록 •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윤리는 예로부터 전해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깨우친 학문도 아니며 생활 속에서 친숙함이 묻어나오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서양인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에 건너와 전파한 종교다. 기독교 윤리도 이들의 활동과 무관할 수 없다. 서양의 기독교(여기서는 가톨릭)를 전하기 위해 예수회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에서 사용했던 방법(적응주의 선교방식)과 그들의 의식은 기독교윤리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금석과 같다할 수 있다. 특히 마테오 리치는 중국(명나라) 관료집단에 가벼운 도덕에 관한 짧은 글들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십오언二十五言』이다. 그는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디리온』(53장)을 중국인들이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축약하기도 하고, 순서를 바꿔가면서 중국어로 번역하고 때론 첨언하면서 25장으로 구성된 짧은 글로 소개한다. 그 이유는 윤리서·과학서·종교서 순서로 편찬한 리치의 문서선교 방식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종교나 종파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덕행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중국 지식인 사회와 소통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마테오 리치의 『이십오언』은 에픽테토스의 『앵케이디리온』의 번역이 아니라 동양의 고전들을 이용하면서 척불보유론斥佛補儒論의 전략이 잘 드러나게 치밀하게 변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십오언』에 나타나 있는 스토아 윤리의 가르침은 유교적 전통과 실천적 덕의 지혜와 어울리는 것 같다. 따라서 『이십오언』은 스토아주의, 유학, 그리고 기독교라는 확실히 서로 전혀 다른 전통 속에서도 같은 토대의 도덕철학과 덕의 수행을 위해 만나고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교사인 리치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서양 고대의 휴머니즘 작품에 주목한 것은 리치가 기독교와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중국의 유교 고전에 주목한 것과 동일한 시각이었다. 마테오 리치의 『이십오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하는 윤리 그러한 윤리가 기독교윤리의 모습이다.

주제어: 마테오 리치, 에픽테토스, 앵케이리디온, 이십오언, 동서윤리학, 서학윤리, 스토아 윤리학, 예수회, 기독교윤리
